

## [목회자 모임-요한복음]

### 2. 로고스

2019. 4. 26.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많이 읽었을 것이다. 잘 알고 있겠지만 1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은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로고스가 희랍철학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말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차피 ‘로고스’라고 하는 희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몰라도 안 되지만 대강 아는 정도이다. 나도 이것을 한 말로 설명하려면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은 워낙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이론적인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것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런데 유독 희랍사람들이 강하다. 그래서 중국과 중동과 인도와 희랍을 보면 문화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다. 그것이 결국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고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한다. 강론한다.’는 말이다.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말로도 발전한다. 한편으로는 ‘말하다. 강론하다.’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스철학의 개념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어떤 원칙이다. 비인격적인 원칙, 불변하는 원칙이다. 세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다. 세상 또는 세계가 똑같은 것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유지하게 하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로고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고스가 있어서 세계는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희랍에서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쓰여졌다고 한다. 희랍철학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일시키는 적극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로고스라는 말 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근원이다. 씨앗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전부 사전적인 의미이다. 그 다음에 창조할 때 쓰인 ‘도구’라는 개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1:3)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도 해석한다. 또 어떤 의미에서

는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신과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잇는 다리라는 개념도 있다.

유태교가 유대사회 안에만 있다가 희랍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두 문화가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는 관계가 된 것 같다. 또 구약에서도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라는 것이다. 우상들은 말을 못하지만 여호와와는 말을 하시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서 있으라 하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다.

또 계시의 말씀도 되고 율법도 된다. 범위가 아주 넓다. 또 하나님이 구원의 대리자라고 할 때도,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로고스를 사용한다. 심지어는 잠언에서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를 로고스라고 했다.

#### **이런 속에서 요한은 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요한이 그 사회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희랍사람들의 개념을 그대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들 속에 유행되고 있는 그들 속에 편만한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요한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있는 말씀하고 요한이 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여기에서 어떻게 헬라적인 개념을 도려내고, 또 구약에서 보고 있는 관점도 비껴가서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서론부분이다.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꼭 로고스는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요한이 본 예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사상이 들어왔다. 그 전에 우리에게서 하늘님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하고 있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옳으냐, 하느님이 옳으냐고 논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초기에 들어온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유일하신 분이라는 개념을 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개신교에서는 주장한다. 어차피 그 문화권에서 대언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카미사마’가 된다. 우리가 어떤 언어의 개념이 꼭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딱 정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다.

희랍적 개념은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단어이겠지만 그리스도는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도 사람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표현할 것이냐는 이런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1:3)라고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바 된 것이냐고 할 때 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 나타난 데도 별로 그런 말이 없지만 교부시대가 되면서 희랍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논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희랍인들은 자기들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기복신앙이 잘 퍼져나가는 것도 하늘님 사상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비도 내려주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이기 쉽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와는 좀 다르다. 하늘이라고 하면 천(天)이라는 개념이 희랍 사람들의 로고스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미분화된 상태인데 가장 높은 것, 잘 모르는 것, 이런 것은 다 천(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임금도 큰 임금은 황제라고 부른다.

중국신화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천황시, 인황시, 지황시 이렇게 삼황이 나온다. 황제로부터 시작한다. 천황시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된다. 인황시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황시는 것은 땅을 의미한다. 삼황우제설이다.

역사책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삼황에 대한 삼황우제가 나온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주의 기원을 말한다. 그리고 주역에 가면 태극과 음양 이런 식으로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권마다 생각이 복잡하다.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 속에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 고민을 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거의 희랍철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찌면 순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학은 거의 희랍철학의 바탕 위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수하게 그때 당시의 예수님 자신, 그분을 알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니깐 당연한 말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나는 당연한 것이니까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못 박아 매달아놓으면 죽는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쉽게 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당시에 이것 때문에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구속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찾아간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만약 예수께서 회복해주신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황제 이상의 자리라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다 먹어치워서 자기들 것들 만들 것이다. 그런데 모두 쳐다보니까 볼 것이 있는가?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라면 절망적이다. 그래서 늘 이야기해도 확실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된다. 아사무사 그런가보다.

제자들도 만일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영광스럽게 보였다고 생각하면 왜 도망쳤겠는가? 거기서 완전 기고만장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절망적이고 부끄럽기 때문에 다 슬며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다. 희랍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심령(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5:3)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많으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야 가난하다. 아무것도 모르면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육신한 인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다. 1장이 그렇다.

장황하게 이야기하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1:14,15)고 표현한다.

이것도 대단히 어렵다. 사실은 성육신을 이해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육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신약 성경 이후에 기독교 논쟁이 생기고 삼위일체론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것 때문이다. 로고스 개념과 겹쳐져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결국은 논쟁이 생기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덮어놓은 문제이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믿자는 식이다.

황제까지 동원되어 옳으니 그르니 하다가 황제까지 손을 들어주니까 그쪽이 정통이 되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논쟁을 하다가 황제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손을 들어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정통이 된 것이다. 그때 만일 안디옥 쪽을 손들어줬으면 양태론이 정통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정치적인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다.

누가 삼위일체론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단지 인간의 이성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삼위일체론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맨날 들어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한다. 알기는 뭘 아는가? 아무것도 모른다. 신의 비밀이라는데 알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 덮어두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헬라적인 개념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론적인 길이니깐 얼마나 복잡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해놓으니까 저것이 들을 만하다, 내일 또 와보자고 하고 간 사람들이다. 저 말쟁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고 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아주 이론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꼭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야지 신학의 어떤 것이 진짜고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신학적으로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저렇게 생각하든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로고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참여하셨다. 선재성이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런데 선재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선재했는지 안했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중에 해석 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꼭 맞는 것이라거나 이것이 안 맞으면 지옥 간다거나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희랍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눈에 볼 수 없고 초월적인 것들을 몽땅 합해서 표현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다 생각하다 안 되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늘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황제를 왜 천자라고 했는가? 이것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황제를 천자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천자 사상이다.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들이다.

희랍세계, 로마 세계도 그런 일이 있었다. 황제는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보낸 것, 신이 보낸 것이다. 그들은 신이 없으니까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저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들이 모두 희랍 세계에 와서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어 나갈 수 있다.

계시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계시자이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있다. 또 해석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수 시대에 뒤따라 다니면서 한 번 봐 보라.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은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도 늘 논쟁거리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것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지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고 말한다.

주변에 체육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커스 계통의 기계 체조하는 사람을 보면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저것이 신이지 인간이냐고 표현한다. 그것이 오히려 솔직하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만 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체육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니깐 저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한다. 김\*아도 빙상에서 유명한데 신기가 있다고 한다. 연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신기가 있다고 한다.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그 신기 때문이다. 연습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신기가 달라서 다르다. 이런 신에 대한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언행일치라는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과 일치하는 데가 어디인가? 예수를 보니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여간 많은 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연구하시기 바란다.

나는 그런 것은 다 모르고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를 구속하려고 우리 인류를 구속하려고 오신 분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선재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우리를 구속하려고 사람을 사람의 위치로 돌리려고 오신 분으로 받아들이니 아주 편하다.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복잡하고 끝도 없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나를 구속하려고 오신 분이구나.

옛날에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막막했다. 구원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막막했다. 나를 인간의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말도 그렇지만 하여간에 인간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분이구나. 내가 저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어딘가 속에 부처님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 자유자, 무중력상태로 올라간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또 나는 육체로 인해 어려움이 제일 많으니까 이런 경우 뭐 좀 다른 방법이 없는가? 괴롭고 복잡한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인간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자연히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한데 이 몸이 안 된다. 마음과 몸이 다르다. 알고 보면 몸이 있으니까 마음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몸과 마음이 서로 입장이 아주 다르다. 마음의 입장과 몸의 입장이 다르다. 내 몸인들 자기 주인을 괴롭히려 하고 하겠는가? 밥 먹여 주고 하는데 주인을 괴롭히려 하고 하는 몸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몸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럴 경우 몸과 마음이 다른 것 같다.

불교에서는 몸 다르고 마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갈라서 생각한다. 몸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옷 입듯이 잠깐 있다가 그만이니까 마음을 닦자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불교의 분파들을 보면 다 마음 심(心) 자가 들어가 있다. 일심회니 마음수련회니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히 있는 것은 마음뿐이라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없다. 그러면 또 마음과 몸이 둘로 갈라진다.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고 남남처럼 갈라진다. 그러면 누구 몸이고 누구 마음인가? 결국 그것이 그것이다.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하고 맞다. 몸이 있어야 마음이 있지 몸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있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회랍사람들은 이것을 둘로 쪼개서 생각한다.

선도 악도 마찬가지로이다. 절대 선이 있고 절대 악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개념을 없앨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반대이다. 선악은 원래 없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은 자기 자유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좌우간 나는 인생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왔는지 물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나와 같은 인생으로 오신 분을 만났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다.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비로소 내 인생의 영원한 원형은 바로 저것이구나. 나는 원래 저 사람이었구나. 저속에 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아니까 너무 간단하고 편해진다. 나를 어디서 찾겠는가? 나를 찾아서 어디로 가겠는가? 찾아봐야 뭘 찾겠는가? 양파 껍질 까봐야 뭐가 나오겠는가? 도로 양파껍질이다.

참 막막한 것이 인생인데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라고 아니까 간단해진다. 틀렸든지 맞든지 간에 하여간에 인생이 간단해진다. 그 이상이 내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상이 내가 될 수 없다. 또 그 이하가 될 수 있는가? 그 이하가 될 수 없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지 내가 내려간다고 내려가지는가?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는가?

누가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느냐? 누가 그를 땅 밑으로 끌어내리겠는가? 우리 위치는 전혀 요동치 않는다. 요동시킬 수도 없다. 개는 죽어도 개고, 살아도 개다. 부잣집 개도 있고 가난한집 개도 있는데 어차피 개는 개다. 부잣집에 산다고 개가 다른 개가 아닌 다른 것이 있겠는가? 모르겠다만 하도 호사하고 살다보면 가난한 집 개를 보고 멸시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개는 개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좋다.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 속에 있었다. 너나 나나 매한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다. 너와 나는 달라, 성질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도 듣고 하다 보면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라는 여기까지 올수 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다. 보통일이 아니다. 너와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너와 나는 같다는 것까지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니까 좀 끝나는 기분도 나지만 흥가분해진다. 내 위치가 저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바람 불던 것이 가라앉은 것처럼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참 이상하다.

내가 처음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는

데 내 인생이 정리가 되었다. 이 복잡한 생각이 전부 정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분을 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 또 뭔가 싹 정리가 된다. 천국에 가려면 뭐가 정리가 되어서 가벼워야 가지 않겠는가? 잔뜩 짊어지고 어떻게 가겠는가? 천로역정 천성문에 가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맨몸으로 가기도 어려운데 짐까지 지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떠나려면 짐이 가벼워야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 안에 오니까 아주 가벼워진다. 신기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 누구를 믿어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1:4) 어떻게 예수가 나의 빛이 되는가?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한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해주겠는가? 아니면 내가 모를 때마다 빛을 비춰주겠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다.

물질세계도 어떤 빛으로 비추면 보이고, 다른 빛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 X광선이 그런 것이다. 그냥은 안 보이는데 그 광선을 비추면 보인다. 우리가 그냥 보면 뼈가 안 보이는데 X광선으로 보면 사진으로 찍힌다. 어떤 광선으로는 보이고, 어떤 광선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 있다.

예수라는 광선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삶, 그것은 나에게 빛이다. 그것을 보게 하는 빛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보인다. 다른 것이 보인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전혀 안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면 보인다.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이것은 호롱불 키다가 전기불을 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아예 안보이다가 보이는 것이다.

바울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고 말한다.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총망 받던 청년이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한다. 들은 일도 없고 생각마저 해본적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다른 빛으로 본 것이다.

교회에서 보면 신기한 일이 많다. 그렇게 헤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뜨여지는 때가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어제까지 헤매던 사람이고, 방금 전까지 헤매던 사람인데, 딱 바뀌어서 다른 것을 본다. 그러면 빛을 봤다고 하지 않겠는가? 사람 바뀌는 것이 신기하다. 그렇게만 보면 사람이 확 바뀌진다. 다른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요일1:7)라고 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케 한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케 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보였다. 그것은 신기한 것이다. 그 피가 나를 깨끗케 하는구나.

그분의 생명 안에서는 보이던 것이 그분의 생명 밖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 어쩌면 성경에 있는 긍정적인 모든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는가? 포도가 어떻고 저떻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이 중국 사람이 썼으면 뽕이라고 했을 것이다. 어디에 그런 포도가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땅에 그런 과일들이 있는가 모르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기다 써 놓았다. 뭔가 다른 것이 보인 것이다. 10명은 안 보이는데 2명만 봤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가 다른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1:4) 이 빛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거절했다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면 거절하겠는가? 보고 싶은 것은 안 보이고, 안 보고 싶은 것만 보이니까 거절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천국을 본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를 들어보면 딱 사람은 안 보인다는 뜻이다. 밭에 묻힌 보화도 다른 사람은 못 본다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다른 사람은 못 본다는 것이고, 전부 다른 사람은 못 본다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이 빛으로 보면 천국이 보이는데, 이 빛이 아니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 언제 오냐, 말세가 언제 오냐, 말짱 어리석은 생각이다. 빛이 있으면 지금도 보이고, 빛이 안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 불에 넣겠는가?

이번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지옥 설명을 하는데, 무시무시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요즘도 저런 방송을 하는가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방송이 다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5~6가지로 지옥을 설명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겠는가? 잘못했다고 하면 당장에 난리 날 것인데 딱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게 생겼다.

결국은 빛이 왔지만 거부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다. 천국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인 것이다. 제자들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절망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가서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해서 간 것이다.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도 순진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말로 한다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다.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걸어 다녔겠네, 또 어떤 때는 고기나 잡으러나 가자고 할 때도 있다. 자기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지만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얼마나 재미있는 형제들인지 모른다. 이 형제들 때문에 내가 땅에 걸어 다니는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났다.

대구 형제들은 말로 표현을 잘 안하니까 잘 모른다. 그런데 춘천 형제들이 오면 서부터는 말로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이런 형제들을 보내준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대구까지 무엇 때문에 오겠는가? 큰 희망이 있어서 온 것인데 와 보니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안 해 본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예수시대의 생생한 모양을 모를 뻔 했다. 그런데

그 형제들 때문에 생생히 알게 되었다. 이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고, 가롯유다는 이렇게 말했고, 그것이 생생히 드러난다.

가롯유다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한다. 가롯유다가 예수가 미워서 판 것이 아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팔아본 것이다. 앞은 보이지 않고 자기 일은 바쁘는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가는 내 인생 망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팔아본 것이다.

팔아봤는데 사형이 되니까 돈 주머니를 갖다 던진 것이다. 돈이 욕심이 났겠는가? 그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좋아한 사람이다. 자기 일이 너무 급하니까 기다릴 수 없어서 팔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돈은 던지고 자기가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다.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다. 베드로는 들어보고 찾아가보고 잠입해서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다. 저 지경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깐 네가 말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억장이 터지겠는가? 그러니까 나간 것이다. 나가는데 너 예수쟁이 아니냐하는 소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더 곤란한 일이다.

베드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갔고, 가롯유다는 주사위를 한번 던져 보자 한 것이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같으면 뭔가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사람 생각도 끝나고, 저 사람 생각도 끝나고, 다 끝나고 말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왔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2,13)는 이 말을 하고 있다.

세상의 로고스라는 개념이 대단히 고상한 말이지만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대인의 종교적 관념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 동양 사람의 하늘님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구나. 나를 제자리로 갖다놓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만사가 다 해결되었다. 죽을 일만 남았지 그 일만 아니라면 만사가 다 해결된 것인데, 이 한 가지는 안 되는 문제이니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었다. 이 한 사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이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여기서 영광으로 보이면 베드로처럼 나가서 떠드는 것이다. 이것이 영광으로 보이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나는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는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알 때 복음을 전하게 된다.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 4:12)고 말했다. 사망은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이 일을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너무 그것이 영광스럽다. 내 인생이 여한이 없다가 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이다.

희랍인의 로고스가 아니고, 중국 사람의 일체사상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하늘님 사상도 아니다. 이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일이니까 사실상은 너무 단순하고도 그냥 평범한 일이다.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에 속았는가? 사람에게 같으면 속지 않을 것인데 천사에게 속았다. 속은 줄 모르고 속았다. 지금도 속은 줄만 확실히 안다면 다 돌아온다. 속은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

말씀을 계속 해도 긴가 민가 긴가 민가 한다. 내가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듣고 있는 사람도 많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듣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확 밝혀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대신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동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지들이 많이 생겨서 이 사실을 사실대로 전했으면, 이 사실을 누가 좀 더 쉽게 전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영원히 살 수 없는 일이고, 그리스도 혼자 살면 된다. 살기는 영원히 그분만 살면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구속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할수록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은가? 나와 아무 관

계가 없고 해준 것도 없다. 여러분이 떡을 얻어 먹어보았는가? 배를 같이 타보았는가?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공허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가 넘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헛길로 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해준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려도 조금도 이상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못해준다.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모르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도 이 구속만은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이 구속만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다.

내게 유일하신 주님이다.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나님 더 위에라고 하든지 간에 나한테는 상관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한분밖에 없다. 그분이 한분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인생이 회복되려면 꼭 그 예수가 필요하다. 꼭 그분이 필요하다. 인생이 더 이상 문제가 없고, 후회가 없으려면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 꼭 가야될 길로 가려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곧 길이요.”**(요14:6) 그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줄 몰랐다. 물론 나도 꽤 담대하지만 이렇게 담대할지는 몰랐다. 이 사람 외에는 없다. 이론이 아니고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 말하겠다. 이 사람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잘못 믿으면 헛일이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처님도 할 수 있고, 공자님도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서 뭐하겠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공자님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별로 신통한 것이 없다. 절에 가서 스님과 1년을 같이 살았다. 그래서 불교 이야기는 아무리 신통한 이야기를 해도 다 들은 것이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좀 와보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몰랐다. 이제 와보니까 그 예수 앞으로 나를 데리고 왔다. 이 사람

을 보라. 이렇게 데리고 왔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와 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